

우리협회, 창립7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황리에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10월19일 창립 7주년을 기념해 섬유센터 대회의실에서 「2000년대 항공우주산업 육성전략」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창립7주년과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설립을 기념해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는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미래 첨단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장기비전을 제시하여 항공우주산업이 국가 백년대계의 일익을 담당하는 중추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산업유공자에 대한 산자부장관 및 협회장의 표창장 수여에 이어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던 이번 심포지엄은 항공우주산업계의 주요 현안과제별 대응전략과 국가 경제·사회·안보측면에서 뿐 아니라 뉴 밀레니엄의 미래산업으로서 항공우주산업이 갖는 의의를 재조명하였으며, 생산, 수요기관 및 정책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우리협회 추호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서 “최근 업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대우·삼성·현대 등 항공3사가 통합하여 국내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전환점이 될 유일의 항공기 체계 종합업체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기타 다수의 부품·소재 업체와 계열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항공선진국과 같은 생산체제를 갖추게 되어 국제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생

산, 수요기관 및 정책당국이 다같이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 발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 이희범 차관보는 격려사를 통해서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기본계획」을 기 수립한 바 있으며, 정부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은 효율적인 산업체제로의 재편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의 하부기반 강화를 위해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해 나가며,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정례화 및 범정부차원의 추진체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임인택 사장도 축사를 통해서 “앞으로 항공통합법인은 국가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중심점이 되어 KF-16, KT-1, KTX-2 등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항공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내 부품 및 보기·소재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조속히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항공우주관련 인사 약 200명이 참석하여 각계의 관심도는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았다.

(상세기사 10p참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뉴 밀레니엄의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장기비전이 제시되었다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으로 중국과 공동개발사업 검토

정부는 지난 10월 22일 99-2차 중형항공기 개발 사업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과 중형항공기개발사업 성사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중형항공기개발사업은 국제공동개발사업 형태로 상대국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어 우리측의 주도적 추진이 어렵고, IMF경제체제에 의한 국내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및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이 곤란한 상태이므로 현재의 4차년도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은 일단 종료하

고 통합법인 설립 후 구체적인 사업이 가시화될 경우 재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지난 10월 1일 한국항공우주산업(주)가 정식으로 출범하여 사업추진 주체가 분명해지고, 최근 중국에서 중소형항공기(30-70석급)분야에서 협력여지가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정부는 중국과 공동개발사업 성사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이 가시화되면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에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재추진을 보고하고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잔액을 활용하여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 SB427, 캐나다 형식증명 취득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세계최대 헬기 생산업체인 미국 벨사와 그 동안 공동으로 개발해 온 SB427 민수헬기에 대해 캐나다 교통부로부터 최근 형식증명을 획득하였다. 또한 SB427은 금년 12월 미 연방항공국(FAA) 및 내년 2월 중국감항당국(CAAC)으로 부터 형식증명을 획득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이미 5개 중국업체들과 10대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전망을 밝게 하고 있으며, 그중 첫헬기를 내년초 중국브로드에어컨사에 인도 할 예정이다.

총3억달러의 개발비가 소요된 SB427사업은 1996년 4월부터 설계, 시제기 제작, 시험비행, 인증절차 등 전 과정을 벨사와 공동으로 수행하였고,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제작하여 한국 및 중국시장에 공

급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헬기의 동체 제작을, 벨사는 구동부품제작을 각각 전담하고 최종 조립 및 판매는 양사가 공동으로 수행하여 향후 15년간 총 36억달러 규모인 1,200대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B427은 최근 강화된 항공안전규정에 맞추어 터빈엔진 2기를 장착하는 등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킨 경헬기로 다른 동급헬기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하고 정비 유지비용이 적게 드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구 분	주요 제 원
최대중량	6,000lbs(2,772kg)
유상하중	2,250lbs(1,021kg)
최대순항속도	140kts(259km/h)
항속거리	385nm(713km)
최대비행시간	4시간
장착엔진	PW207D(710마력급) 터빈엔진 2기
탑승인원	8명

다목적실용위성, 오는 12월 20일 발사에깁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1호)을 실은 미국 오비탈(Orbital)사의 토러스(Taurus) 발사체가 오는 12월 20일 16시 12분(현지시간 12월 19일 23시12분)에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된다. 반덴버그 공군기지는 LA에서 북서쪽으로 240km에 위치한 지역이다.

토러스 발사체는 4단 고체연료 발사체로서 지금

까지 3번의 발사에서 모두 성공한 바 있으며 다목적실용위성을 4번째로 발사하게 된다. 다목적실용위성은 미국 TRW사와 공동으로 약 5년간에 걸쳐 개발하였으며 항공우주연구소내 우주시험동에서 총조립 및 최종 검증을 마친 국내 최초의 다목적실용 위성이다.

다목적실용위성은 앞으로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고도 685km 지구 저궤도를 돌며 한반도 관측을 통한 정밀지도제작, 해상관측 및 해양오염 관측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상세기사 23p 참조)

정부, 우주개발사업 전략적 육성

정부는 우주개발사업체제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하고, 부처별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우주개발사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주개발사업체제 정비방안」을 마련, 지난 3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했다.

또한 국가우주개발정책수립 및 중요 현안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한 우주개발전문위원회(위원장 과기부차관)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였다. 새로만 들어지는 우주개발전문위원회는 과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외교·국방·건교·정통·산자·해양부 등 1급 공무원과 관련 연구기관장, 산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우주개발 기본계획의 심의 및 정책조정 ▲우주기술개발·이용 관련 사업의 심의 ▲위성발사장 건설 및 운영계획 심의 ▲기타 우주개발 관련 중요 현안사항 심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항우연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고 전

자통신연·국방과학연 등 연구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다목적 실용위성 2호기에 탑재할 고해상도 카메라 개발사업에 국방과학연의 축적된 관련기술을 항우연에 지원하기로 했다.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는 항우연과의 연계체제하에 과학위성 개발 및 인력육성에 전념하도록 하고 모든 우주관련 연구개발과제를 항우연이 총괄하도록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전문분야별 계열화를 통해 다목적실용위성, 무궁화위성사업, 위성발사체 개발 사업 등에 산업계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GPS, 관측·통신·기상위성, 위성방송 및 인터넷 분야 등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의 산업수요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우주각료회의, 세계전파통신회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P) 등 국제 우주정책, 기술수준 등에 관한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민수용 발사체 및 위성관련 핵심기술의 이전 촉진을 위해 미국, 러시아, 중국 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탄소 브레이크 디스크로 장영실상 수상

한국항공우주산업(주)가 항공기용 탄소·탄소복합재 브레이크 디스크를 개발해 매일경제신문사와 한국생산기술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48주 장영실상을 수상하였다.

항공기용 탄소브레이크 디스크는 항공기의 이·착륙시 수십·수백이나 되는 무거운 기체가 200km-300km 속도로 활주시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마찰 열에너지로 바꾸어 이 열을 흡수함으로써 항공기를 단시간에 제동시키는 기능을 한다. 특히 탄소브레이크는 항공기의 고속화·대형화 추세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 초경량 마찰재이다.

그동안 전량 수입 사용하던 F-16 항공기용 탄소브레이크는 고가 고빈도 소모성 부품으로 항공기의 유지보수에 핵심부품이며 이를 국산화함으로써 수입대체 효과와 군의 원활한 임무 수행에 지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으며, 수출기반도 마련했다.

국내 항공기용 탄소·탄소복합재 브레이크 시장은 연간 약 500억원 규모이며 이번 개발로 전량 국산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시장 점유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항기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면 연간 수백억원대의 수입 대체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항공, 미 서머텍사와 합작 엔진 특수공정 전문업체 설립

삼성항공은 미 서머텍사와 합작, 특수 공정 전문업체인 「서머텍코리아(Sermatech Korea, Ltd)」를 설립하여 엔진사업 수익율을 제고하고, 해외 물량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신설된 합작법인인 자본금 6백만달러 규모로 삼성항공이 49% 지분에 인력과 설비 등 현물·현금을 출자하고, 서머텍사의 51% 자본과 신규기술로 설립되었다.

향후에 서머텍코리아는 제조사업의 핵심기술 영역인 특수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전문업체로서 사업영역을 국내뿐만 아니라 중동·러시아 일부를 포함한 아시아, 호주·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수공정은 코팅, 브레이징, 프라즈마 및 특수용접 등 부품의 수명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고부가가치 필수 기술로서,

선진국의 기술이전이 극히 제한적이고, 국산화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합작성공으로 삼성항공은 전체 생산공정의 5%이내이나 항공기 엔진제작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특수공정을 국내에서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동안 미국 전문업체에서 해오던 시간과 경비를 동시에 절감할 수 있게되어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지게 됐다. 앞으로 삼성항공은 그동안 일부 국산화에 성공한 특수공정을 합작사로 이관하고 신규로 확보되는 합작사 기술을 바탕으로 엔진수리 및 제조사업을 확대해 세계 유수의 엔진 전문업체로 성장할 계획이다.

서머텍사는 신규기술 및 자본 등을 제공하는 대신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거점 확보가 가능해 국내 및 아시아 시장진입 및 시장점유율 확보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합작사 설립으로 특수공정이 한국내에서도 가능해 향후 5백억원 이상의 국산화 대체효과가 예상된다.